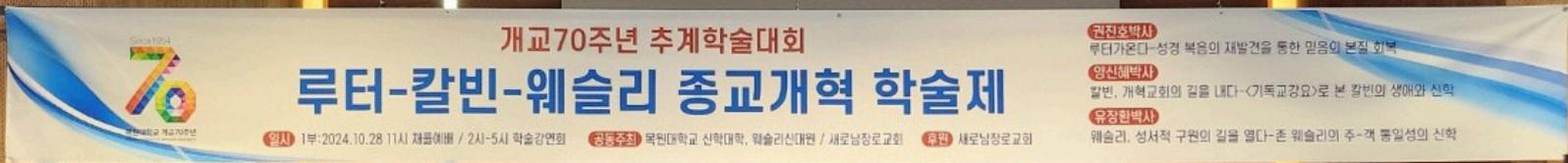


*사진 출처 : 목원대학교 웨슬리신학대학원



numbers
vol. 295

신대원생 생활과 사역 인식

희망 사례비, 파트 전도사 132만 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5 하반기 휴가 계획
- ② 한국 떠나는 백만장자 규모

2025. 7. 15.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희망 사례비, 파트 전도사 132만 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

신대원생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이며, 신학대학원에서의 신학교육은 이들이 건강한 신앙과 영성을 바탕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양분이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연합신문이 신대원생들의 신앙생활, 진로, 신학교육, 사역 전반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대원생의 사역과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백석, 합동, 통합, 감리교 등 22개 신학대학원 재학생 45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분석을 담당했다.

또한, 2015년 실시한 신대원생 조사(기독교연합신문)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신대원생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추적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미래 목회자 양성 방향과 신학교육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교회 사역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술제

역진소망사

부디가온다-성경 복음의 재발견을 통한 믿음의 본질

양심대역사

갈변, 개혁교회의 길을 내다-(기독교강요)로 본 갈변의

유정림박사

웨슬리, 성서적 구원의 길을 열다-존 웨슬리의 주-거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원생 생활과 사역 인식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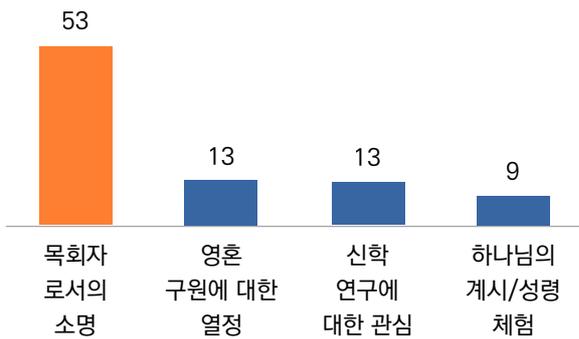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의 신학대학원 재학생 (22개 학교) - 조사 대상 신대원 : 감신대, 고신대, 목원대, 백석대, 부산장신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아신대, 웨스트민스터, 장신대, 총신대, 침신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합신대, 호남신대 등
조사 방법	온라인,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총 455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 총 조사된 455명을 각 학교별 정원 비율로 가중치 부여함
조사 기간	2025년 3월 7일 ~ 2025년 3월 14일 (총 8일간)
조사 주체	기독교연합신문사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비 고	조사 결과에서 비교한 2015년 자료는 2015년 기독교연합신문사 주최로 조사한 “신학대학원생의 의식과 사역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 조사대상 : 신학대학원 재학생 300명 - 조사기간 : 2015.04.15. ~ 2015.09.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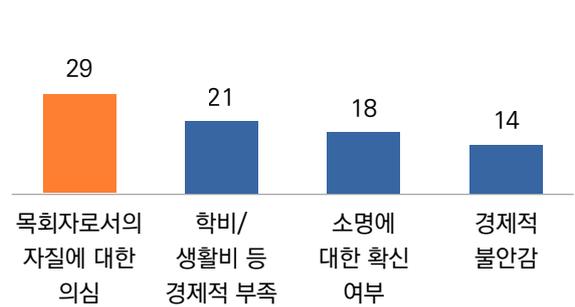
[신대원 입학과 진로] 신대원생 53%, '목회 소명' 따라 신대원 입학

- 신대원 입학 동기로는 신대원생 절반 이상(53%)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꼽았다.
- 신대원 입학 시 고민했던 것으로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명에 대한 확신 여부'와 함께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신중한 사명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 그 외 '학비/생활비 등 경제적 부족'과 '경제적 불안감' 등 경제적 요인도 진학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소로 드러났다.

[그림]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 (2025,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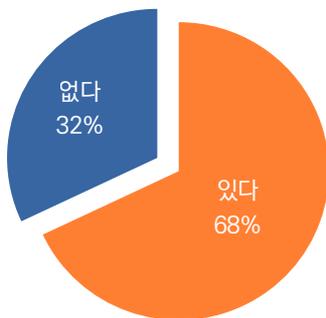
[그림]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고민했던 것 (2025,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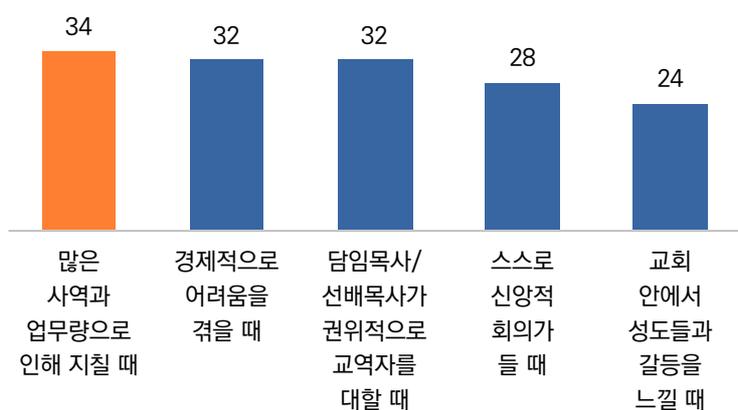
신대원생 68%, 목회자 소명에 대해 후회한 적 있다!

- 신대원생들에게 목회자로서 소명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1+2순위), '후회한 적이 없다'는 32%, '후회한 적 있다' 68%로 나타났다.
- 후회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많은 사역과 업무량으로 인해 지칠 때'(23%),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22%), '담임목사/선배목사가 권위적으로 교역자를 대할 때'(22%)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후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목회자로서 소명에 대한 후회 여부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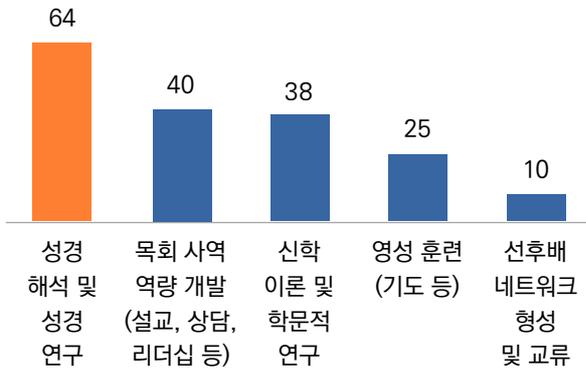
[그림] 목회자로서 소명 후회 내용 (후회한 적 있다 응답자,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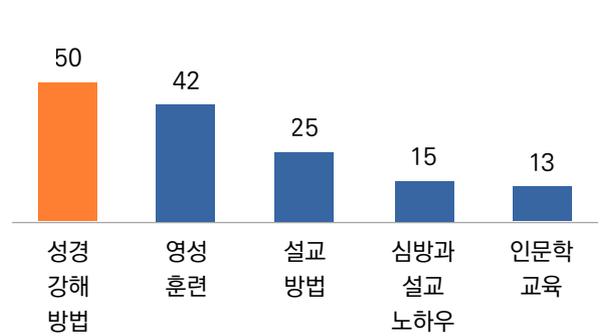
신대원 교육에서 강화 부분, '성경 강해 교육'

- 신대원 생활 중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1+2순위)는 '성경 해석 및 성경 연구'(6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목회 사역 역량 개발' 40%, '신학 이론 및 학문적 연구' 38% 순이었다.
- 신대원 교육에서 가장 강화되기를 바라는 영역으로는 '성경 강해 방법'이 50%로 1위로 꼽혔다. 이는 신대원생들이 성경 해석과 강해 방법 등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그림] 신대원 생활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 (1+2순위, 상위 5개, %)



[그림] 신대원 교육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 (1+2순위, 상위 5개, %)



신대원생 49%, '교회 부교역자/교회 개척 하겠다'

- 신대원 졸업 이후 계획으로는 '교회 부교역자'(38%)를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선교사' 12%, '교회 개척' 11% 순이었다.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신대원생도 13%로 8명 중 1명 가량 되었다. 전체적으로 49%의 신대원생들이 졸업 후 교회 사역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교회 부교역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는 '교회 개척'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40대 이상의 부교역자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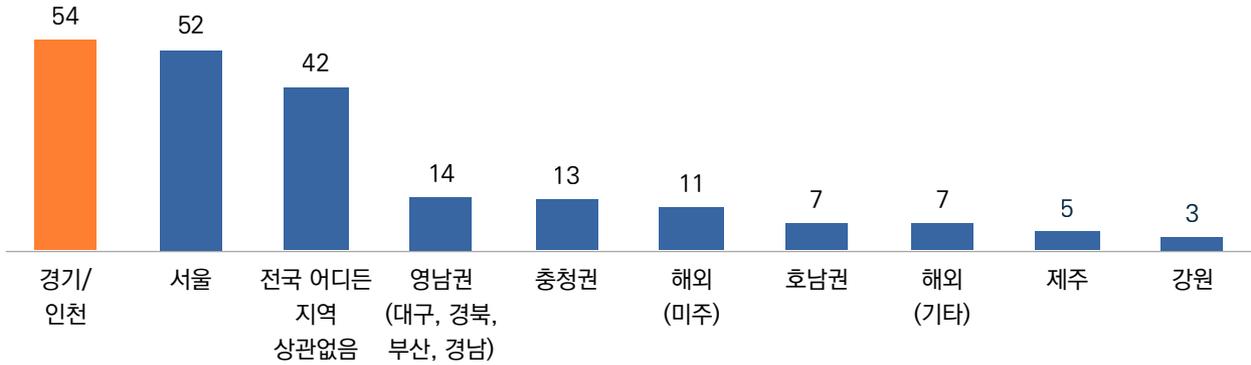
[그림] 졸업 이후 진로 (%)



향후 부목사 사역 시, 절반 이상은 '서울/수도권' 희망!

- 향후 부목사로 사역할 경우 어느 지역까지 희망하는지를 묻은 결과, '경기/인천'(54%)과 '서울'(51%) 등 서울·수도권 선호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 반면 '전국 어디든 지역 상관없음' 응답도 42%로 적지 않았으며, '제주'와 '강원'은 각각 5% 미만으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그림] 향후 부목사로 사역시 희망하는 지역 범위 (향후 부목사로 사역하려는 자,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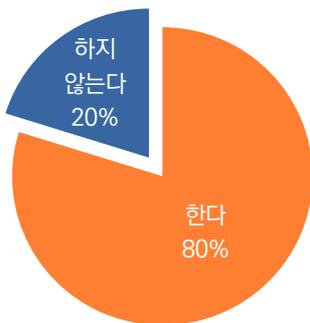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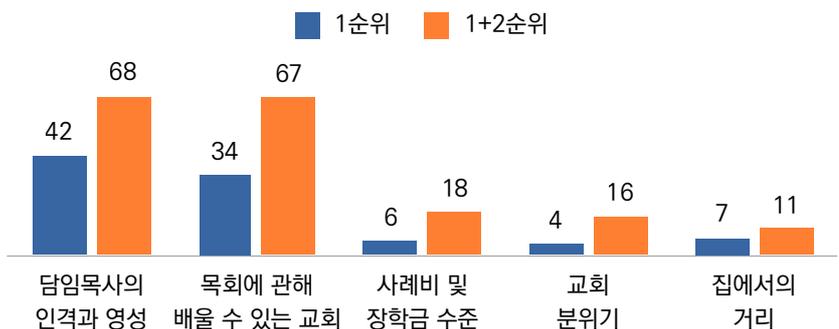
[현재 사역 현황과 교회 선택] 사역지 선택 기준 1순위, '담임목사의 인격과 영성'!

-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신대원생 비율은 80%로, 대부분이 사역에 참여 중이었다.
- 사역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1순위 기준)으로는 '담임목사의 인격과 영성'(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목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교회', '사례비 및 장학금 수준' 순이었다. 이는 사역지 선택에 있어 물질적 조건보다 목회자로서의 배움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현재 교회 사역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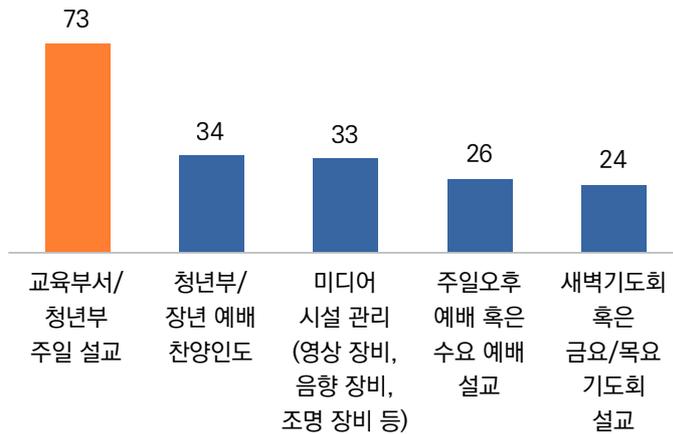
[그림] 사역할 교회 선택하는 기준 (상위 5개, %)



신대원생 4명 중 1명, '5개 이상' 사역 감당 중!

- 현재 신대원생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교육부서/청년부 주일 설교'가 73%로, 신대원생 10명 중 7명은 교육부서 중심 사역(유아·유치부~청년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청년부/장년 예배 찬양 인도'(34%), '미디어 시설 관리'(33%) 등의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역의 개수를 보면 평균 2.9개였고, '5개 이상' 사역을 하는 경우도 25%로 조사됐다. 신대원생들의 과중한 사역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현재 하고 있는 사역 (현재 사역하는 자, 상위 5개,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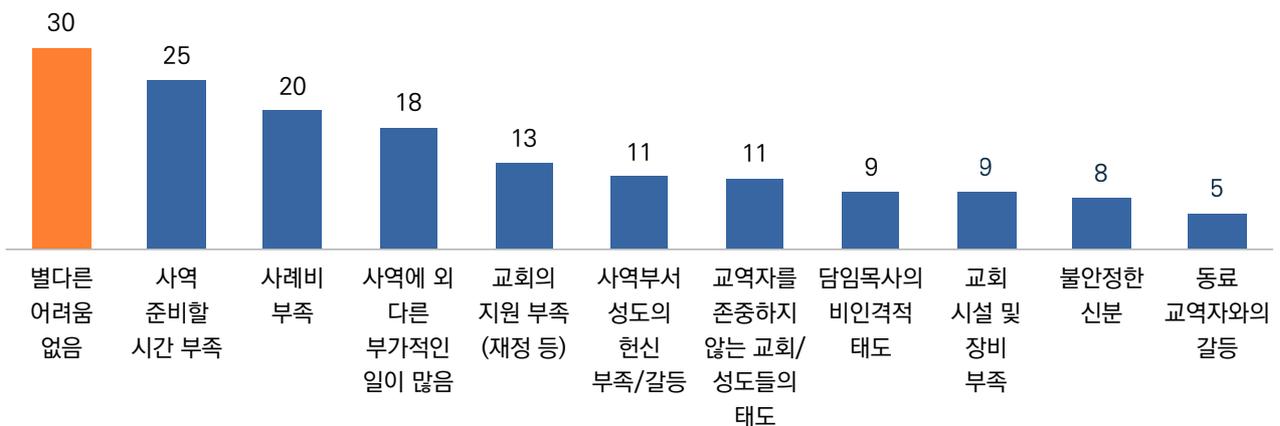
[그림] 현재 하고 있는 사역 개수 (%)



교회 사역의 가장 큰 고충, '사역 준비할 시간 부족'!

-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신대원생 중 30%만이 '사역 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고(1+2순위), 나머지 70%는 사역 과정에서 다양한 고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이 교회 사역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역 준비할 시간 부족'(25%)이었다. 학업과 사역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 사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현재 사역하는 자,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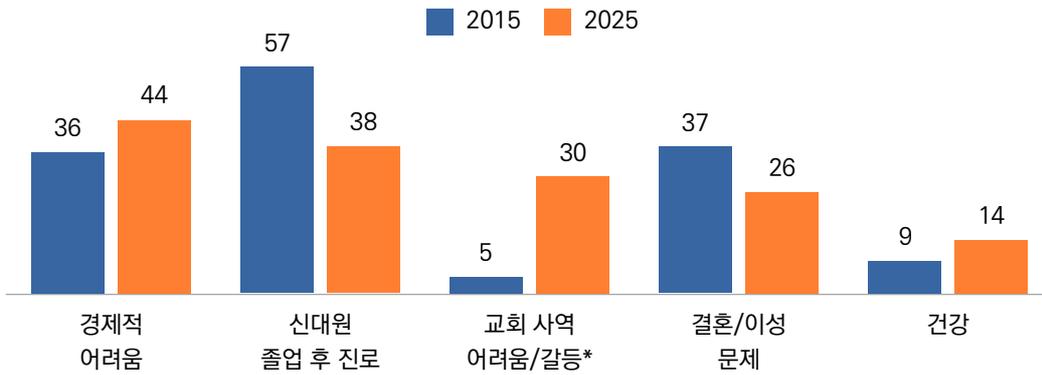
03

[사례비와 사역 조건]

신대원생의 고민, 10년 전에는 '진로',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

- 신대원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10년 전에는 1위가 '졸업 후 진로'(57%)였는데, 2025년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44%)으로 변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위기를 신대원생들도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현재 고민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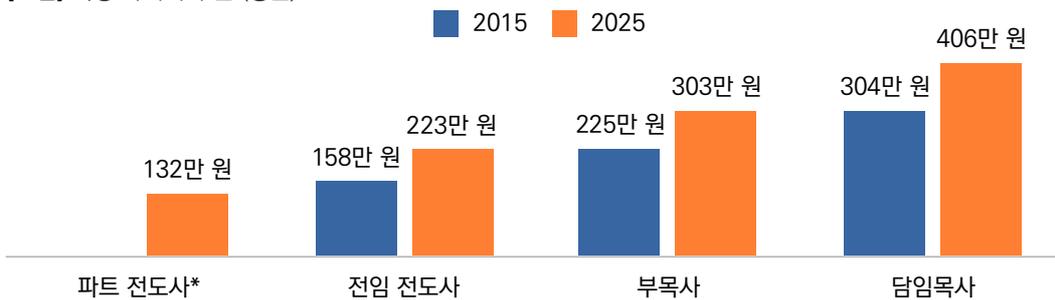


*2015년 조사 보기에는 '사역' 4.0%, '교회 안의 문제' 0.7% 나뉘어져 있어, 보기를 합한 수치임.

희망 사례비, 파트 전도사 132만 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

- 신대원생들이 생각하는 적정 사례비 수준은 2015년 조사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기준, 파트 전도사의 적정 사례비는 132만 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으로, 전임 전도사의 경우 10년 전보다 65만 원 증가했다.
- 부목사의 적정 사례비는 2015년 225만 원에서 2025년 303만 원, 담임목사는 304만 원에서 406만 원으로 각각 78만 원, 102만 원 상승했다.

[그림] 적정 사례비 수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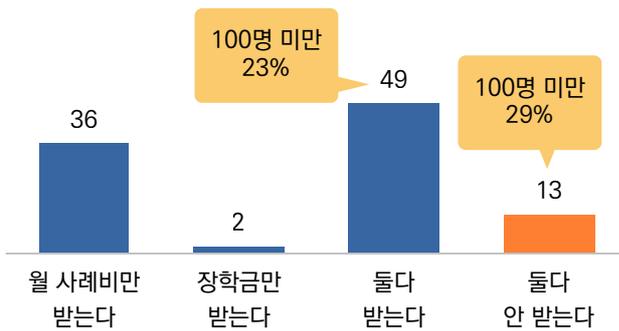


*파트 전도사는 2025년이 첫 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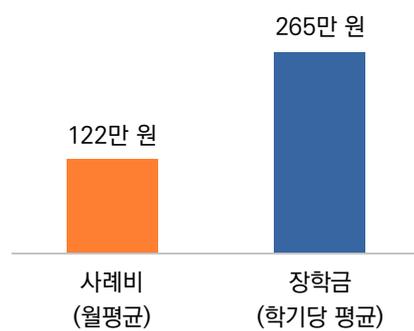
사역 중인 신대원생 8명 중 1명(13%), 사례비도 장학금도 없이 사역 중!

- 현재 교회 사역 중인 신대원생들에게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 형태를 묻은 결과, '월 사례비와 장학금 둘 다 받는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둘 다 안 받는 경우'도 13%로 나타나 신대원생 8명 중 1명은 무보수로 사역 중인 현실이 드러났다.
- 특히 '100명 미만' 소형교회에서는 '둘 다 받는다'는 비율이 낮고, '둘 다 안 받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형교회 파트 사역자의 보상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신대원생이 교회에서 받는 월평균 사례비는 122만 원으로, 앞서 조사된 희망 사례비(132만 원, 파트 전도사)보다 10만 원 낮았고, 학기당 장학금은 평균 265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림] 교회에서 받는 사례 형태 (현재 사역하는 자, %)



[그림]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현재 사역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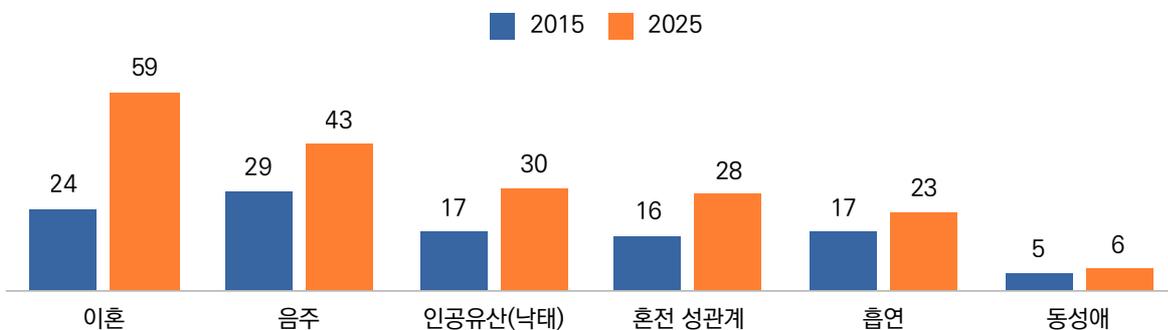
04

[기타]

10년 전과 비교, 신대원생의 윤리의식 크게 약화!

- 신대원생 대상으로 음주, 흡연, 이혼 등 6가지 윤리 항목에 대해 인식을 묻은 결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해도 무방하다'는 긍정률은 2015년 조사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혼'에 대한 긍정률은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음주', '인공유산(낙태)', '혼전 성관계' 허용 인식도 10%p 이상 상승해 주목된다. 이는 신대원생의 윤리의식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신대원생의 윤리의식 (본인 기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해도 무방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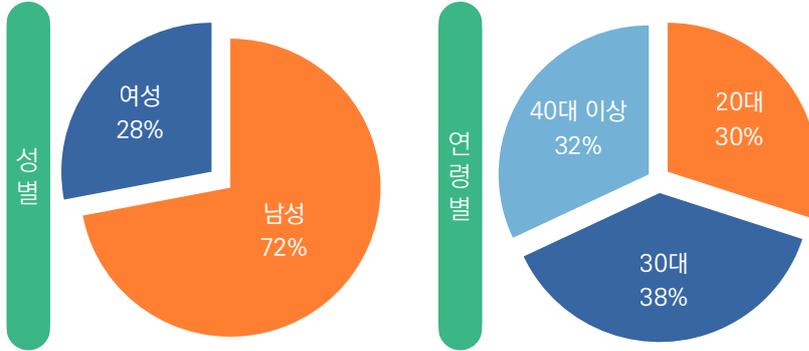


*3점 척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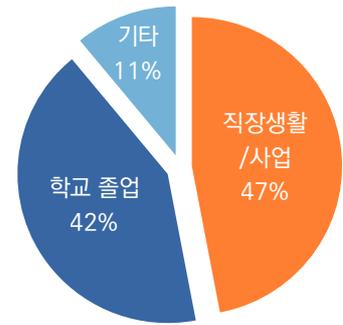
신대원생 3명 중 1명은 '40대 이상'!

- 응답자들의 성/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72%)이 여성(2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대는 20대 30%, 30대 38%, 40대 이상 32%로 신대원생 3명 중 1명은 4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 신대원 입학 전 하던 일을 묻은 결과, '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한 자(42%)보다 '직장생활/사업' 후 늦깎이 진학 비율(47%)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신대원생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림] 신대원생 응답자 특성별 분포



[그림] 신대원 입학 전 하던 일



이번호 요약

1. 신대원생의 고민, 10년 전에는 '진로',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

- 신대원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10년 전 조사에서 1위였던 '졸업 후 진로'(57%)에서, 2025년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44%)으로 변화한 점이 눈에 띈다.

2. 신대원생 49%, '교회 부교역자/교회 개척 하겠다'!

- 신대원 졸업 이후 계획으로는 '교회 부교역자'(38%)를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선교사' 12%, '교회 개척' 11%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49%(부교역자+교회 개척)의 신대원생들이 졸업 후 교회 사역으로 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희망 사례비, 파트 전도사 132만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

- 신대원생이 생각하는 적정 사례비(2025년 기준)는 파트 전도사 132만 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으로, 전임 전도사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 65만 원 증가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다양한 목회방향 모색하는 신대원생들 (CBS뉴스)

관련 성경 구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목회 적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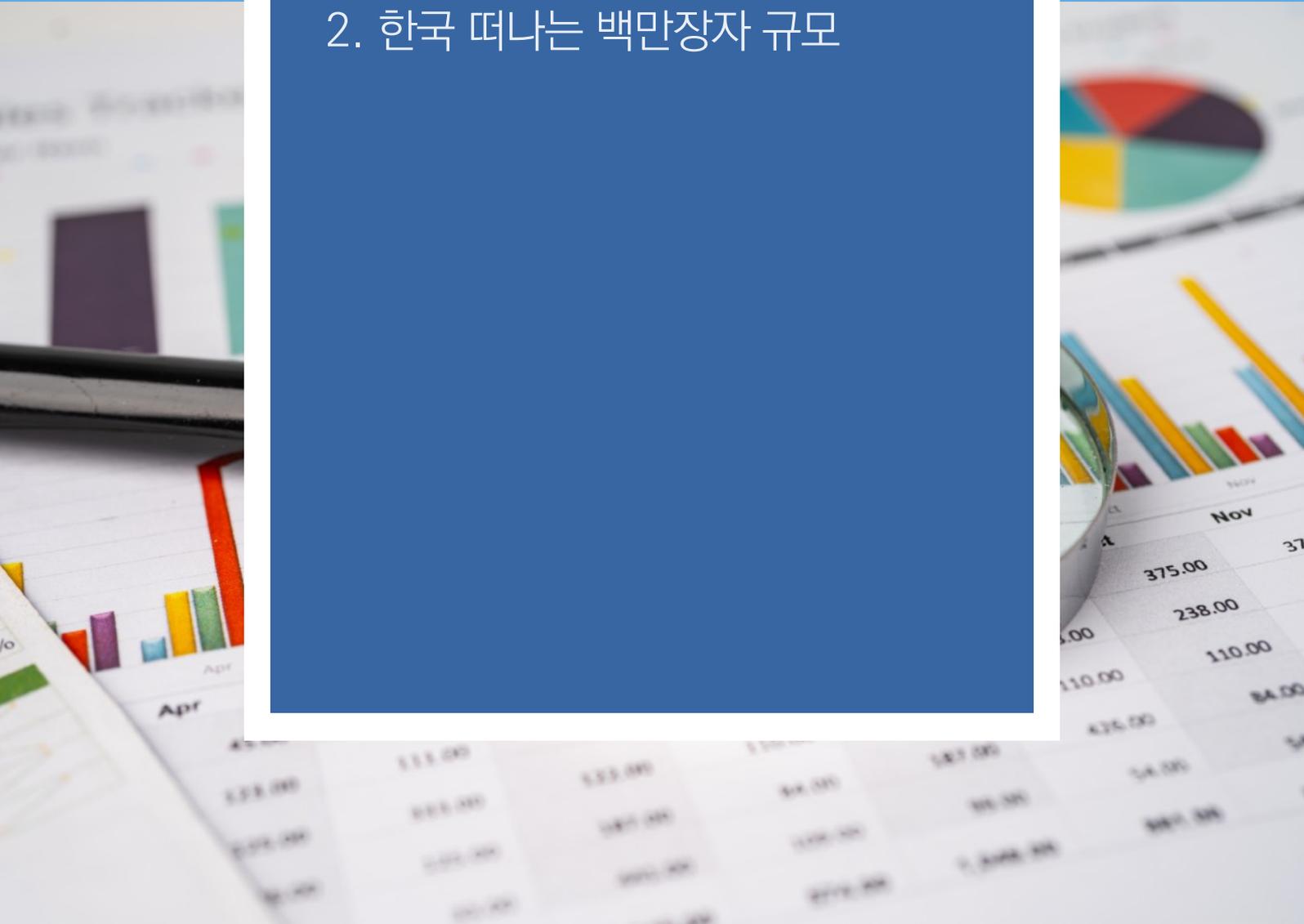
이번 신대원생 조사의 응답자 분포를 보면 20대 30%, 30대 38%, 40대 이상이 32%로, 신대원생 3명 중 1명이 40대 이상이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신대원생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현재의 고민거리 질문에서 2015년 조사에서는 '졸업 후 진로'가 1위였는데, 2025년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신대원생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과거보다 더욱 심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신대원생의 고령화는 진로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20~30대는 졸업 후 '교회 부교역자'로의 길을 계획하지만, 40대 이상 신대원생은 교회 부교역자보다는 교회 개척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교회들이 연령이 높은 부교역자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40대 이상 신대원생 역시 낮은 나이 부교역자 생활이 쉽지 않고, 또 언제까지 사역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교회 개척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회는 부교역자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고연령 신대원생의 사역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등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역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적정 사례비 기준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신대원생이 생각하는 '파트 전도사' 적정 사례비는 평균 13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현재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비와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확인해, 차이가 크다면 개교회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5 하반기 휴가 계획
2. 한국 떠나는 백만장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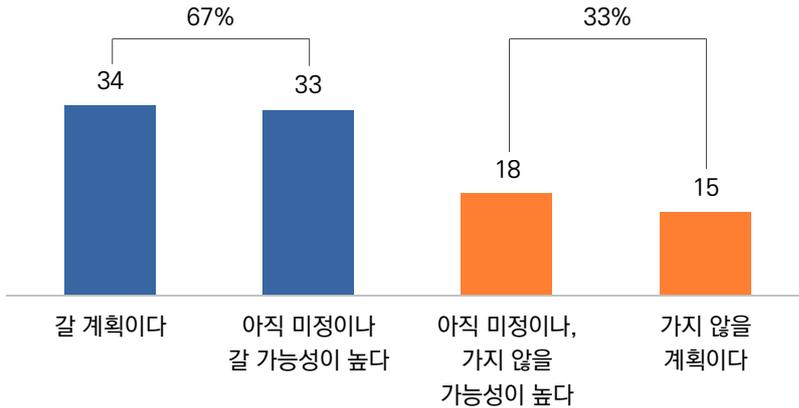




[2025 하반기 휴가 계획] 국민 3명 중 1명, 올해 하반기 휴가 계획 '없다'!

-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7월부터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목회자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국민들의 올 하반기 휴가 계획은 어떠한지 '2025년 하반기 여행계획'을 살펴본다.(한국리서치)
- 올해 하반기(7~12월) 국내 휴가 계획 여부를 묻은 결과, '갈 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67%, '안 갈 계획이거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가 33%로 국민 3명 중 1명가량은 하반기 휴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25년 하반기(7~12월) 국내 휴가 계획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년 하반기 여행계획, 2025.07.08.(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1,000명씩 2회 조사), 웹조사, 2025.06.13.~06.16./06.27~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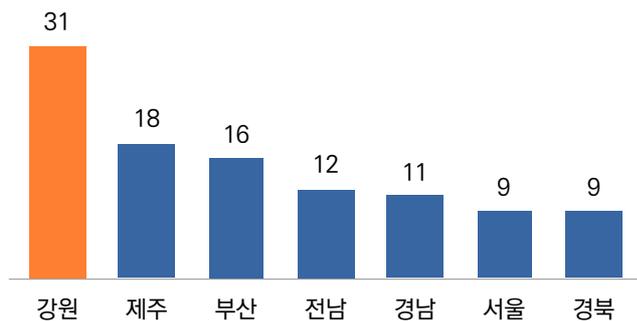
국내 휴가여행 기간, 평균 3.8일 정도!

- 국내 휴가여행 기간은 평균 3.8일이었고, 휴가여행 예정 지역(복수응답)으로는 '강원'(31%)이 가장 인기 여행지였고, 이어 '제주' 18%, '부산' 16%, '전남' 12% 등의 순이었다.

[그림] 국내 휴가여행 기간 (하반기 여행 계획 있거나, 갈 가능성 높은 응답자)



[그림] 국내 휴가여행 예정 지역 (복수응답,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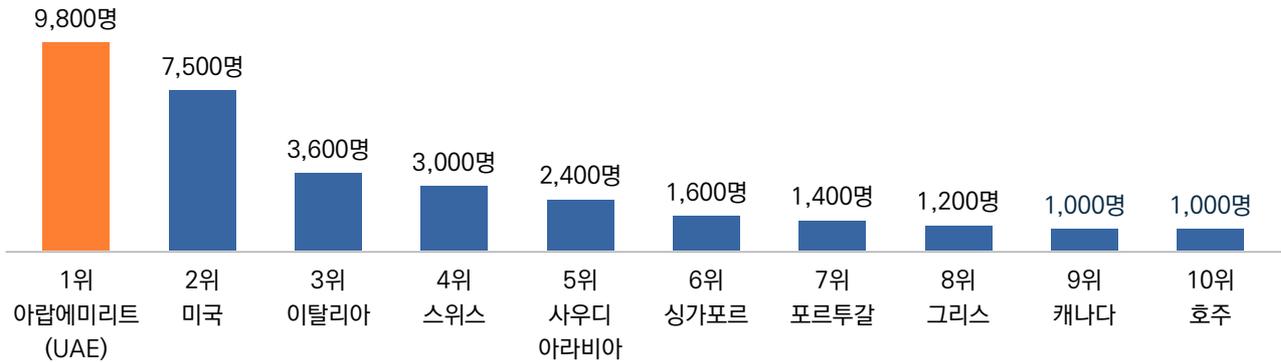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년 하반기 여행계획, 2025.07.08.(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1,000명씩 2회 조사), 웹조사, 2025.06.13.~06.16./06.27~06.30)



[한국 떠나는 백만장자 규모] 세계 백만장자 순유입 1위, 아랍에미리트(UAE)!

-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간한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 2025'에서는 세계 나라별 고액자산가의 2025년 순유입·유출 규모를 예상했는데, 고액자산가는 부동산 외 유동자산이 100만 달러(한화 14억 원 정도) 이상인 부자를 의미하고, 국제 이주는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예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잠정치를 산출했다.
- 올해 세계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로, 9,800명의 순유입이 예상된다.

[그림] 2025년 국가별 세계 백만장자 순유입 순위 (순유입 31개국 중 상위 10개국)



※출처 : 동아일보, '돈 싸들고 한국 뜨는 백만장자 2400명...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2025.07.05.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704/1319420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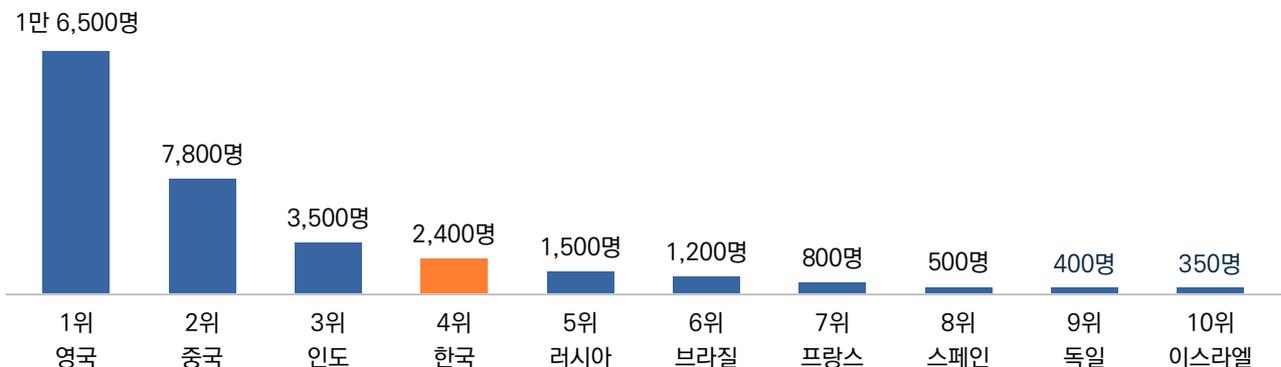
※원출처 : Henley & Partners, The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5, 2025.06. (<https://www.henleyglobal.com/publications/henley-private-wealth-migration-report-2025>)

Note) 총 59개 국가 중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인구가 +인 '순유입 국가'는 31개국, 순이동인구가 -인 '순유출 국가'는 28개국임

한국 떠나는 백만장자 2400명, 순유출국 중 4위!

- 이번에는 백만장자 순유출에 대해 알아본다.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으로 1만 6500명이 영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순유출 규모 2,400명으로 4위에 올라 주목된다.

[그림] 2025년 국가별 세계 백만장자* 순유출 순위 (순유출 28개국 중 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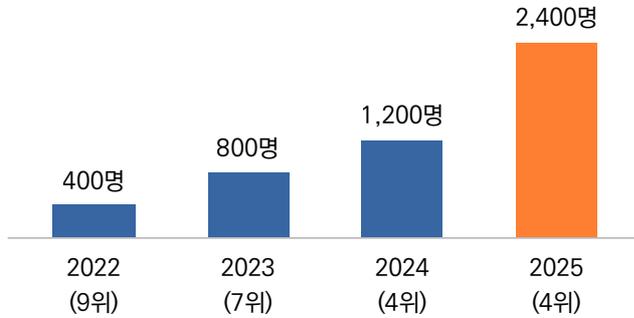
※출처 : 동아일보, '돈 싸들고 한국 뜨는 백만장자 2400명...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2025.07.05.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704/131942029/2>)

※원출처 : Henley & Partners, The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5, 2025.06. (<https://www.henleyglobal.com/publications/henley-private-wealth-migration-report-2025>)

한국 이탈 백만장자 수, 매년 증가세!

-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00명(9위)에서 2023년 800명으로 1년사이에 2배가 증가해 전 세계 7위에 올랐고, 2024년 1,200명(4위)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또다시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 인원



※출처 : 동아일보, '돈 싸들고 한국 뜨는 백만장자 2400명...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2025.07.05.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704/131942029/2>)

※원출처 : Henley & Partners, The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5, 2025.06. (<https://www.henleyglobal.com/publications/henley-private-wealth-migration-report-202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28호 \(2025년 7월 2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59호 \(2025년 7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 방향성 평가, 정당지지도, 대통령 인사 평가

[역대 대통령 첫 지지율, 노태우 꼴찌·문재인 1위... 이재명은?](#)

한국일보_2025.7.13.

사회 일반

[서울 30대女 80% “정자은행 찬성”... 절반은 “비혼출산 괜찮다”](#)

동아일보_2025.7.4.

[더 시원한 '숲세권'... 같은 서울이지만 온도 차 최대 4.2도](#)

조선일보_2025.7.14.

[서·연·고 검정고시 출신, 259명 ...1년생 37% 증가](#)

노컷뉴스_2025.7.13.

[65세 이상 장애인 40%는 홀로 거주... '사회적 고립도' 1.7배](#)

연합뉴스_2025.7.9.

[마약중독자 4명 중 3명 "주위 사람 권유로 사용 시작"](#)

연합뉴스_2025.7.6.

[과도한 부는 비도덕적?... "GDP·사회평등 등에 따라 인식 달라"](#)

연합뉴스_2025.7.7.

[\[2025 자녀·육아인식조사\]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의 수와 선호하는 성별](#)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7.8.

[\[기획\] 2025년 하반기 여행계획](#)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7.8.

[2025 평소 인간관계 및 폐쇄형 SNS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7.8.

아동 · 청소년 · 청년

[청소년 비만율은 계속 오르는데... 신체활동은 제자리걸음](#)

조선일보_2025.7.7.

[가족 돌보는 청년들, 절반이 번아웃](#)

한겨레21_2025.7.2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치킨집·주점, 절반이 3년 안에 사라진다…월평균 얼마나 벌길래](#)

매일경제_2025.7.8.

[국내 자영업자들 “상반기 순이익 15% ↓ …하반기 8% 감소 예상”](#)

국민일보_2025.7.10.

[상반기 직장인 2명 중 1명 이직 시도…“성공률은 28%”](#)

연합뉴스_2025.7.10.

[여성 CEO 최대 고민거리 '육아·가사'…“기업인 위한 돌봄 지원도 필요”](#)

중앙일보_2025.7.7.

[코로나 뒤 개인파산 줄었다, 20대와 60대 이상만 빼고](#)

한겨레_2025.7.10.

국제 · 환경

[“베테랑 4050 잡아라”…희망퇴직 없애는 대기업](#)

매일경제_2025.7.9.

[식량 위기 인구 4년만 '86%' 급증…전쟁, 기후변화, 경제 격변까지](#)

조선일보_2025.7.10.

[“이제 '기후불안' 시대…무기력·상실감으로 출산 등 영향”](#)

연합뉴스_2025.7.8.

건강

[“러닝족들 좀 참아주세요”…오전 시간 무더기 온열질환자, 절반은 마라톤 때문](#)

매일경제_2025.7.9.

[한국인, 운동 정말 안 한다… ‘전 세계 꼴찌’ 수준](#)

조선일보_2025.7.11.

기독교 · 종교

[신천지 시스템 리포트], (국민일보)

[〈상〉 직장인 청년 신도 목줄 죄는 이단… “종일 사역하라” 퇴사 압박](#) _2025.7.7.

[〈중〉 신천지 경호조직, 내부 고발자 청부 폭행 모의했다](#) _2025.7.8.

[〈하〉 “이단은 이렇게 접근” 식별법·예방 교육 확산](#) _2025.7.8.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성시교회 (담임목사 명성훈)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01
청빙방식
결정
(공모, 추천)

02
최적화된
목사 Profile
도출 조사

03
1차 선별
도출된 Profile에
근거하여
지원자 선별

04
2차 선별
선별된 후보자
평판 조사

05
최적의 담임목사
추천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체계성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전문성



객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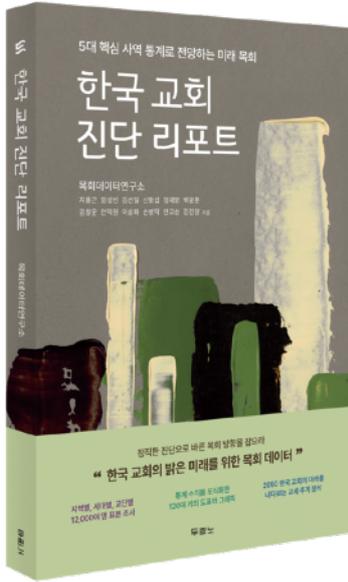
체계성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연구소 소식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쿼일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	--------------------------------------	--------------------------------	--------------------------------	-------------------------------------



연구소 소식. 업무 협약(MOU) 체결

우리 연구소는 7월 15일(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합동, 신용기 이사장)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역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